



FC바르셀로나 사비 감독 헤어질 결심 취소...내년 6월까지 지휘봉 유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물러나기로 했던 FC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내년 6월까지 사령탑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지난 1월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며 사퇴 결심을 밝힌지 3개월 만의 변심이다.

허웅·허훈 형제 대결...kt 첫 우승이나 KCC V6나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27일 스타트 전·현 부산 연고팀...시즌 성적 팽팽 리그 최고 스타 보유 팬들 관심 집중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수원 kt와 13년 만에 정상 등극을 노리는 부산 KCC가 맞붙는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이 27일 막을 올린다.

kt와 KCC의 챔피언결정전 맞대결은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장 재미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팀들의 매치업이어서 팬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먼저 허웅(KCC)과 허훈(kt)이 벌이는 '형제 대결'이 첫 손에 꼽히는 관전 포인트다.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장남과 차남인 이들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라이벌이다.

2021-2022시즌 올스타전에는 '팀 허웅'

과 '팀 허훈'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쳤고, 이번 시즌 올스타전에서도 팬 투표 1, 2위를 허웅과 허훈이 차지했을 정도로 리그 최고 스타 선수들이다.

허웅은 원주 동부 신인 시절이던 2014-2015시즌 이후 9년 만에 다시 챔피언결정전에 올라왔고, 허훈은 이번이 챔피언결정전 데뷔 무대다.

팀으로 보면 kt는 사상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도전한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중 챔피언전 우승이 없는 팀은 kt와 창원 LG, 대구 한국가스공사 전부터다.

4강에서 LG를 3승 2패 접전 끝에 따돌린 kt는 2006-2007시즌 준우승 이후 무려 17년 만에 다시 챔피언결정전에 올라왔다.

반면 KCC는 정상에 오르면 6번째 챔피언결정전 우승이 된다. 이는 7번의 울산 현대모비스 다음가는 기록이다.

다만 KCC 역시 2010-2011시즌 이후 13

년 만에 우승을 노리기 때문에 첫 우승에 도전하는 kt의 입장을 봐줄 처지가 못 된다. 2015-2016시즌과 2020-2021시즌에는 챔피언전까지 진출했으나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쳤다.

'연고지 이전'도 이 두 팀을 논하면서 빼놓기 어려운 주제다.

kt는 2003-2004시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부산을 연고지로 삼았다가 2021-2022시즌부터 경기도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겼다. 이번 챔피언결정전 부산 원정은 kt 입장에서는 옛 홈 경기장을 찾게 되는 셈이다.

KCC 역시 2001-2002시즌부터 20년 넘게 전북 전주에 터를 잡아 왔으나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산으로 연고지를 바꿨다.

국내 4대 프로 스포츠로 불리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에서 부산 연고 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한 최근 사례는 1997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대우 로얄즈다.

KCC 전장진 감독은 kt가 부산을 연고로 할 때인 2009-2010시즌부터 2014-2015시즌까지 kt 사령탑을 지낸 인연도 있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3승 3패로 팽팽히 맞섰다. 1~3라운드 kt가 이겼고, 4~6라운드는 KCC가 승리했다.

kt가 허훈과 패리스 베스 등의 공격력이 돋보인다면 KCC는 허웅, 이승현, 최준용, 라건아, 송교창 등 '슈퍼팀'으로 불릴 정도로 라인업이 화려하다.

정규리그 5위 팀으로는 최초로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KCC가 4강을 21일 4차전에 끝내 24일 5차전까지 치른 kt에 비해 체력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kt는 정규리그 3위로 KCC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 1, 2, 5, 7차전을 안방에서 치르는 '홈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다.

두 팀의 챔피언결정전 1차전은 2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kt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연습

홈런 신기록 최정 "500홈런 욕심 난다"

이승엽 감독 넘어 468호 아치 그려 타점·최다경기 출장 신기록도 기대

최정(SSG 랜더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승엽 감독님의 기록과 내 홈런 기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랐다"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던 최정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2024시즌 초반을 '홈런'으로 뜨겁게 달궜고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방문 경기에서 기어코 468호 아치를 그렸다.

한때 '불멸의 기록'으로 불렸던 이승엽 두산 베이스 감독의 기록(467개)을 넘어선 KBO리그 통산 홈런 신기록이었다.

"빨리 이승엽 감독님 기록을 넘어서서 조용하게 야구하고 싶다"고 털어놓던 최정도 이승엽 감독의 기록을 넘어선 뒤에는 "개인 통산 500홈런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욕심 난다"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홈런보다는 주목도가 덜하긴 하지만, 프로 20년 차에도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하는 최정은 여러 누적 기록에서 '신기록'에 다가서고 있다.

득점 부문에서는 이미 단독 1위다.

최정은 지난해 9월 6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1356번째 득점을 해 이승엽 감독의 기록(1355득점)을 넘어섰다. 24일까지 1386개로 득점을 늘려 2위권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현역 선수 중에는 손아섭(NC 다이노스)이 1330개로 최정 다음으로 득점이 많다.

경기 출장은 2185경기, 현재 4위이지만 최정보다 많은 경기에 출전한 현역 선수

는 강민호(삼성 라이온즈·2260경기)뿐이다. 최정은 올 시즌도 예전처럼 큰 부상 없이 마치면 은퇴한 정성훈(2223경기), 박용택(2237경기)을 제치고 이 부문 2위로 올라설 수 있다.

최정은 KBO 역대 두 번째 1500타점 고지에도 접근하고 있다.

24일 롯데전 홈런으로 개인 통산 타점을 1476개로 늘린 최정은 이 부문 2위 이승엽 감독의 기록(1498개)에 22개 차로 다가섰다. 24타점을 추가하면 통산 타점 1위(1562개) 최형우(KIA 타이거즈)에 이어 두 번째로 1500타점을 채운다.

1987년 2월생인 최정이 1984년 12월에 태어난 최형우보다 현역 생활을 더 오래 할 가능성이 크다.

최정은 '세계적인 이색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총 330차례나 투수의 공에 맞았다. 2위 박석민(212개)보다 127번이나 더 맞아 출루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이 부문 1위는 휴이 제닝스(287개)다.

최정은 투수의 공에 너무 자주 맞아 '마그넷 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최정은 "은퇴할 때까지 3루수로 뛰고 싶다. 그래서 체중 등 몸 관리에 더 신경 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퇴할 때까지 매년 두 자릿수 홈런을 치는 게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라고 했다.

최정은 468호 아치를 그리며, KBO리그 연속 두 자릿수 홈런 최장 기록을 '19년 연속'으로 늘렸다.

홈런 사냥 속도가 줄지 않는다면, 최정은 올해 안이나 다음 시즌 초에 개인 통산 500 홈런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

연습



김하성, 이틀 연속 멀티 히트 샌디에이고 김하성이 25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퍼스 필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치른 방문 경기에서 5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2타점 결승 적시타를 포함해 이틀 내리 멀티 히트를 치고 타율을 끌어올렸다. 김하성이 6회초 3루수 쪽으로 굴러가는 기습 번트 안타로 출루한 뒤 콜로라도 3루수의 1루 악송구로 2루에 안착해 환호하고 있다.

연습